

다시 찾은 나의 길

>>>>> 이 정 옥 / 한국산업간호협회 사무국장



젊은 시절에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이 길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시는 이 일과는 상관없이 살 것으로 여긴 때도 있었다

남 녀노소 한 마음이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던 6월의 함성과 이어서 70년만의 폭우라 하는 수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아쉬운대로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고 있다. 어느덧 내 삶의 빛깔이 이 계절을 닮아있음을 바라보며 나의 일과 나의 행복을 돌아보게 된다.

젊은 시절에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이 길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아가 전문직으로 긍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지금껏 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선택한 일에 후회가 없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실무를 익히다가 기회가 있어 외국 병원에 나가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간호사라는 전문직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그 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때에는 다 그랬지만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 집안 일과 아이들 키우는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다시는 이 일과는 상관없이 살 것으로 여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뒤늦은 신학 공부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했던 관계로 나는 내 일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86년도 성남시에 있는 영원무역에 입사하게 되었고 전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아닌 근로자들과의 생활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와 다른 매력이었다. 그곳은 오리털 자켓을 생산하는 봉제공장으로 500여명의 여공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미혼인 여자 근로자들이기에 그들의 육체적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성, 학업, 동료 관계, 경제, 종교, 노사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기에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수강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다가갔다.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 가족의 건강문제가 있어 2차 진료가 필요하면 모든 인적 자원 및 지식을 동원하여 좋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정확한 진단, 질 높은 치료, 친절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지원체계(병원장이나 간호부장, 수간호사)의 도움으로 진료시 특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치료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주력하였다. 저학력의 여성근로자가 많아 혼전임신, 자궁외 임신, 성폭행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는 특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 서로간에 신뢰가 쌓

이자 나중에는 아무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사적인 일까지도 상담을 구하여 때로는 엄마같이 또 때로는 언니같이 그들의 일들을 함께고민하는 보람된 시간들이었다.

언젠가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한 관리자가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자기 아내를 속이고 여직원과 동거를 하는 등 피해여직원이 갈수록 늘어나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한 문제를 회사차원으로 이해할 만한 상사와 계획하여 성희롱 현장의 증거를 포착하여 그 관리자를 권고사직 시킨 바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일 같으나 근로자들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여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그 당시에 나는 산업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졌었다. 또한 이웃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10년 동안 매주 1회 스케일링을 무료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치위생을 도모하였으며 간호대학의 학생들에게 산업전문간호 현장을 제공하여 산업간호의 무한한 분야와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한국산업간호협회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는 전국의 2,000여 명 산업간호사들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전문간호사와 같은 입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일을 즐기며 열심히 하여 산업간호 분야의 밑거름이 되기까지 힘을 다 하려 한다. **PPPK**